부동산으론 부족해…광주 퇴직연금 가입 증가율 전국 1위

2018년 기준 공적+퇴직연금 광주 10만2856명·퇴직연금만 4028명
퇴직연금 증가율 63.1%…가입자 수는 광주 15번째·전남 13번째 수준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금융사 방문·제출서류 1~2개로 줄어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 주식과 연금 등 금융상품 위주로 재테크 채비를 하는 추세다.

광주지역 퇴직연금 가입은 전국 17 시·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남도 세종·울산에 이어 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

7일 통계청 '시·도별 연금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퇴직연금만 가입한 인구 수는 광주 4028명·전남 461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가입한 수를 세면 광주 10만2856명·전남 10만3899명 등으로 불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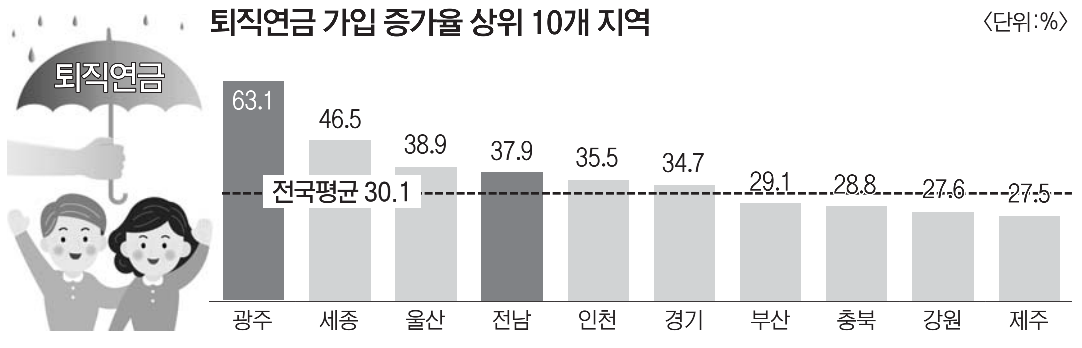
퇴직연금만 가입한 전국 인구 수(17만2148명)에 비해서는 전남은 13번째 광주 15번째로 비중은 적지만, 퇴직연금 가입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만 가입한 인구 증가율은 지난 2018년 기준 광주는 63.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30.1%의 2배를 넘긴 수준이다. 광주에 이어서는 세종(46.5%), 울산(38.9%), 전남(37.9%), 인천(35.5%), 경기(34.7%) 등이 뒤를 따랐다.

증가율 30%를 넘기지 못한 지역은 전북(20.8%), 충남(22.7%), 경남(23.7%), 대전(24.8%), 서울(24.9%), 대구(25.7%), 경북(25.8%), 제주(27.5%), 강원(27.6), 충북(28.8%), 부산(29.1%) 등 11개 시·도였다.

정부는 금융상품 위주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퇴직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하는 추세다.

앞서 4일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 등 소비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퇴직연금(DB·DC·기업형 IRP) 이전 규모는 8만8171건, 2조7757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 내 매도 시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콤달콤 딸기가 제철 ㈜광주신세계 직원이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제철을 맞은 '설향' '장희' '금실' 등 다양한 종류의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코스피 3000시대 '빚투주의보'…주식투자·차입 '사상 최고'

지난해 3분기 주식투자 22조5000억원·차입 52조6000억원 기록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주식 열풍으로 지난해 3분기 가계가 주식 투자를 위해 굴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3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020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가운데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부문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2조5000억원으로 직전 2분기의 사상 최대 기록(21조3000억원)을 다시 넘어섰다.

지난 2019년 3분기(-8000억원)보다는 23조원 이상 많다. 채권 역시 1년 사이 4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10조원 넘게 불었지만, 2분기 기록(11조5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금도 기록을 갈아치워 가계 주식투자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한 이른바 '빚투'라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같은 기간 가계는 53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이 5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9년 통계 집계 이래 분기 최대 기록이다.

한편 순자금 운용액은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64조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bhc '프리미엄 한우'로 광주·전남 공략 나선다

상무지구에 '창고43' 1호점 오픈…전국 17번째 직영매장

국내 치킨 대표업체 bhc가 '프리미엄 한우'로 광주·전남 활동 반경을 넓힌다.

bhc는 고품격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 '창고43'(대표이사 임금옥) 광주 1호점을 최근 서구 상무지구에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17번째 직영 매장으로, bhc는 수도권 위주 출점을 벗어나 광주·전남에 첫 거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창고43 광주상무점 외관 전경. 〈bhc 제공〉

개점식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임금옥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주상무점은 990㎡(약 300평)·292석 규모로, 최대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별 식사공간이 17개나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창고43은 청정지역에서 자란 최고 품질의 토종 한우만을 선보이는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을 표방하고 있다. 끌칼을 이용해 결대로 고기를 찢어서 먹는 방식이 특징으로 꼽힌다.

실내는 나무와 철 소재를 활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bhc 측은 광주시청과 공원·문화시설 등이 인근에 몰려있어 직장인과 가족 단위 식사장소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고43은 광주상무점 개점을 기념해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점심 메뉴인 왕갈비탕과 유자육회비빔밥을 30% 할인하는 행사를 펼친다. 왕갈비탕은 왕 갈비뼈 2대에 숙주 등 신선한 야채가 가미돼 푸짐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유자육회비빔밥은 유자 풍미를 한껏 살린 부드러운 육회에 표고버섯, 고사리 등이 어우러져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송연우 bhc 직영사업본부 상무는 "서울 강남·여의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기존 출점과 다르게 광주상무점 오픈은 지방 지역에 본격 진출하며 브랜드 전국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광주상무점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창고43 브랜드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